

디베이트를 활용한 연계·단계적 글쓰기 수업 모형*

— 대학 기초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소필균(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목 차 〉

1. 서론
2.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사례
 - 2.1. 디베이트 사전 자료 준비
 - 2.2. 디베이트 실전 수업 사례
 - 2.3. 디베이트 주제 논증 작성
3.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 효과
 - 3.1. 디베이트 적용의 글쓰기 효과 검증 분석
 - 3.2. 디베이트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의 효과
 - 3.3. 디베이트 판정과 배심원 의견에서의 효과
4. 결론

국문초록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은 논증글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논증글쓰기 능력은 대학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토대가 된다. 디베이트를 준비하고 실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체계와 논증력이 신장된다. 디베이트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생성하는 과정은 논증글의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의 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295)

반이 된다.

본고는 글쓰기 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읽기·듣기·말하기·쓰기’로 구성된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수업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논증글쓰기까지 수행하게 하는 수업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디베이트 사전 자료 준비’→‘디베이트 실시’→‘디베이트 주제 논증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이 수업 모형은 디베이트 실시 전후 여러 활동과 다양한 요소의 쓰기활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연계적인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 효과는 디베이트 준비와 실시, 판정과 배심원 의견의 효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조사는 의견의 이유와 논거의 배경을 구축하고, 교차질의는 참여한 논점에 주목해서 논증력과 글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배심원의 판정과 의견은 글의 주제 선택과 논리 전개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디베이트 전 후와 진행 과정의 효능에 관한 설문을 검증 분석하여 확인한다.

주제어 : 디베이트, 자료조사, 입론, 반론, 교차질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논증력, 논증글쓰기, 연계, 단계

1. 서론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에서 논증글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 디베이트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제 대학 ‘글쓰기’ 과목 수업 모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 모형이 논증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가장 정합적인 글쓰기 유형을 체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글쓰기 교과목에서 쓰기를 위한 일종의 쓰기 전(pre-writing) 과정으로 디베이트를 활용하고 있지만, 디베이트와 쓰기 능력 향상과의 관련성이나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베이트와 글쓰기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대학 글쓰기 수업이 가지는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가 지향하는 바와 관련된 선행 연구 사례를 정리한다.

강원화와 장혜영은 디베이트 소그룹 지도 방식을 통해 일대일 관리, 토론 전 준비 단계의 충실한 지도, 구체적인 분석과 피드백 제공, 수업 중 다양한 특별 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¹⁾ 김일방은 대학수업에서의 디베이트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²⁾ 강수진은 교육토론이 진정한 의의를 살리는 방안으로 논증적 글쓰기를 토론 전에 먼저 실행하는 통합 수업 방안을 선택하여 제안하고 있다. 논증적 글쓰기나 토론이 의견과 논증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와 역방향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 이은주는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토론 도서를 읽고 다양한 글을 써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 요소인 읽기와 쓰기가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⁴⁾

1) 강원화·장혜영, 「디베이트 소그룹 지도 사례 연구」, 『사고와표현』 10,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2) 김일방, 「디베이트 수업이 학생들의 토론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21-2,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2019.

3)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4) 이은주,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글쓰기 수업의 효과 - 덕성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한국독서학회, 2011, 501-516면.

디베이트를 활용한 논증글쓰기는 정합적인 단계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 모형을 체험하게 한다. 지금까지 대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논문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게임식 토론인 디베이트를 활용하여 국어교육의 네 영역을 종합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네 영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제안한다.

디베이트는 대립토론 방식으로 승부가 나는 스포츠 경기처럼 엄정한 룰에 따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료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주장을 펼치는 말하기 경기이다. 디베이트에서 측정되는 기량은 자료 조사, 읽기, 듣기, 말하기이지만, 본고는 디베이트 절차를 토대로 쓰기 능력까지 신장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읽고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 상대팀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포인트를 잘 잡고, 질문에 적절하게 답하는 훈련을 통해 논증력이 신장된다.

대학 교수자의 권위는 지식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⁵⁾ 대학 글쓰기 강좌에서 다양한 글쓰기 수업 시도가 공개되고 공유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⁶⁾ 따라서 교수자는 자신의 수업이 대학생의 글쓰기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목표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학 글쓰기의 지향점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효율적인 연습을 통한 숙련이라고 볼 수 있다. 논증글쓰기는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숙달시킬 가치가 있다.

대학의 글쓰기 강좌는 수사학적 전통의 후계자이며, 고등교육으로 가는 길목에서 커리큘럼의 핵심을 차지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가치 있을 것이라고 대학의 모든 교수진이 동의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강좌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지적 능력, 즉 글쓰기에 있어서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하나의 학문이나 직업에 있어서 소중

5) John Bigg, 강현석 외 5인, 『대학교육의 서론은 도전: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21면.

6) 이상원, 『서울대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2015, 6면.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를 지닌다.⁷⁾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교양 및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학업 자세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학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는 학문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이해와 연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지식과 사고의 작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강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신의 논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⁸⁾

이상적인 의사 표현에서 모든 사람은 논의하고 듣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모든 사람의 논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논증 과정에 대한 모든 구조적 제약 즉, 내적 외적인 제약이 없어야 한다. 공정한 논증은 어느 누구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남을 지배하려 하거나 전략적으로만 행동하려 하지 않으며, 위협이나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논증하는 사람들은 논증 활동의 목표와 규칙을 정하고, 자유롭게 논증하며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

논증 행위는 우리의 이성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성은 갈등을 해결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증 행위에서 갈등의 수준이나 강도가 다른 담론적 실천에서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논증 행위는 그것을 다른 종류의 담론과 다르게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갈등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또한 갈등에 의존한다.⁹⁾

논증 행위에 관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배운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념이나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 우리가 무엇인가 논의하기로 하고, 또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면, 우리는 결과를 미리 결

7) James Crosswhite, 오형엽 역, 『이성의 수사학-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236면.

8) 최규수, 『대학시절의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와 친해지기 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14, 18-21면.

9) James Crosswhite, 앞의 책, 146면.

정할 수 없고 목적이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논증 행위 과정으로부터 논증을 고립시키지 않고도 논증적 담론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논증의 장점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청증을 확인함으로써 논증을 평가할 수 있다.¹⁰⁾

본고는 디베이트 활용이 대학글쓰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가장 상위 단계인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제 대학 기초교양 글쓰기 과목 사례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 수업 모형은 학생들에게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 절차를 통해 대학글쓰기에서 학술적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논증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체계적인 글쓰기 유형을 체험하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글쓰기 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듣기·말하기·쓰기’의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 네 가지 영역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논증글쓰기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업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디베이트 사전 자료 준비’ → ‘디베이트 실시’ → ‘디베이트 주제 논증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연구는 학습자의 활동 과정을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5점 척도 설문으로 디베이트 전 후와 진행과정의 효능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증에 의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설문은 J 대학교 기초교양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는 2020년도 신입생 세 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각 분반은 1주일 2회 총 3시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분반의 수업 내용은 동일하였다. 수업 구성은 개강 초기에 조 편성과 논제 선정을 하고, 디베이트 준비를 거쳐 실전을 치르고 논증글쓰기까지 이르는 절차가 한 학기에 걸쳐서 진행된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디베이트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이 수업 모형의 효과를

10) 위의 책, 147-148면.

검증해보고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디베이트 모형은 교차조사식토론(CEDA)¹¹⁾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디베이트는 찬, 반 양측의 대립적 시각의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디베이트를 실행하는 내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인인 배심원의 결정에 의해 해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논쟁의 형태와 구분된다.¹²⁾ 이러한 디베이트의 특성과 수업 진행 과정 등 모든 절차를 학기 초 강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제시하고 수업 활동 구조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대학글쓰기 수업에 대한 논문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읽기·말하기·듣기·쓰기’¹³⁾의 국어교육 네 영역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글쓰기 수업을 위한 게임식 토론 방식 디베이트를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은 효과적인 글쓰기 수업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계’와 ‘단계’의 개념은 디베이트 실시 전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과 다양한 요소의 쓰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융합의 방식을 의미한다.

11)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논쟁 방식은 논제에 찬성하는 긍정측(affirmative)과 반대하는 부정측(negative) 팀 간에 입론(Constructive Speech), 교차조사(Cross Examination), 반박(Rebuttal) 단계를 거치며 논쟁을 전개한다. CEDA 논쟁 방식은 국내외 대학생 토론 대회의 기본 포맷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두원, 「CEDA 찬, 반 논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효과적인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90면).

12) 이두원, 「토론자의 디베이트 능력과 수행평가 모델 연구: 아카데미식 정책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85면.

13) 이 연구에서 국어교육의 4요소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표기 순서는 이 글에서 디베이트를 활용한 연계·단계적 글쓰기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2.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사례

2.1. 디베이트 사전 자료 준비

이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예시를 통해 ‘디베이트 자료준비’→‘디베이트 실전’→‘디베이트 주제 논증’으로 나아가며 완성되는 과정을 제안한다.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와 영역이 충분히 작동된 디베이트를 활용한 연계적이고 단계적인 글쓰기 수업은 수강생이 논증글쓰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 이러한 디베이트는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인 ‘읽기·말하기·듣기·쓰기’를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학생들은 ‘디베이트 관련 영화감상문 쓰기→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 요약 쓰기→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 서평 쓰기→디베이트 준비 과정의 입론, 교차질의, 반론 쓰기→디베이트 준비 과정의 예상 반론과 반론 쓰기→배심원의 디베이트 채점지 쓰기→논증글쓰기’의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연계되며 최종적으로는 논증적 글쓰기 단계에 이르게 한다. 여러 유형의 글쓰기는 다양한 글을 써보는 체험이 되고 문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디베이트를 실시하는 한 팀은 두 조로 구성하며, 한 분반은 세 팀으로 구성한다. 기초교양 글쓰기 강좌의 한 분반의 학생 수를 짝수 조로 나눠 두 개 조가 한 대결팀으로 디베이트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청중과 배심원이 된다. 대결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로 이루어진 평가조가 짝수로 구성되어 무승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기도 한다.¹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디베이트 실시는 2시간 연장으로 진행되는 수업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 구성은 학기 초에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LMS)¹⁵⁾의 랜덤으로 조 편성

14) 교수자는 강좌 분반의 수강생 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건이 되도록 디베이트 제반 사항의 구조를 정하면 된다.

15) ‘LMS’는 본교의 수업 사례 글쓰기 강좌 수업이 진행되는 J대학교의 ‘스마트학습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정한다. 조 구성이 랜덤이므로 그 후, 제시된 디베이트 주제를 1조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는 방법 또한 랜덤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원하는 주제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이 단점이지만, 디베이트의 목적이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를 합리적으로 설득해내는 것임을 인정하고 순조롭게 받아들인다. 학생들은 디베이트 실시까지 몇 주에 걸쳐 체계적으로 디베이트 실전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친다. 디베이트가 실시된 후에는 디베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고지에 600자 분량의 논증글쓰기를 한다.

디베이트의 교육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¹⁶⁾ 첫째, 자료조사 곧 리서치(Research) 능력으로 디베이트 주제에 맞는 자료를 파악하게 되며, 나아가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능력이 확장되어 자료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비교, 분석,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말하기(Speech) 능력이 자기주장 발표를 통해 신장된다. 셋째, 비판적 듣기(Critical Listening) 능력이 배양된다. 그 이유는 상대방과 논리 경쟁을 하려면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쓰기(Writing) 능력으로 디베이트 주제에 관한 논증글쓰기에 효과적이다.

대학 수업에서 교수자의 권위는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이 주도적 활동에 의해 스스로 인식을 깊고 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수업 모형이며, 교수자는 학생들의 조력자로서 수업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디베이트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일은 디베이트의 토대가 된다. 디베이트는 일반 토론과는 달리 찬반이 명확한 주제에 관해 논리를 비교하고 평가하여 의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논리

관리시스템'이다. 이하 'LMS'라고 표기한다.

16) 캐빈 리, 『디베이트』, 한겨레에듀, 2011, 64면.

를 듣고 대응해서 반론을 하는 과정을 통한 말하기에 대해 배심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논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 받는 일이 된다. 말하기 평가를 받은 뒤 주장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마무리 하면 그것이 논증글쓰기다.

2.1.1. 디베이트 방법과 자료 탐색

2.1.1.1. 디베이트 관련 영화감상문 쓰기

교수자는 수강생들에게 디베이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하게 하기 위해 디베이트를 주제로 한 ‘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¹⁷⁾ 영화를 감상하게 한다. 학생들은 디베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주어진 일정한 기간 안에 과제로 제시된 영화를 감상한 후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수행한다.

영화감상문 쓰기 과제를 내는 이유가 영화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감상문 분량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감상문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LMS 과제게시판에 다섯 문장 이상으로 작성해서 전송하게 한다. 과제를 점검해 보면 학생들은 제시한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으로 감상문을 써서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그림 1>은 학생의 영화감상문 예시이다.

‘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영화감상문
토론에서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상대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진실을 방해하는 목소리일 뿐이라는 답이 인상 깊었다. 토론은 상대방과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다. 논제에 대한 풍부하고 타당한 근거와 경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부딪치며 어떤 답에 도달하는 길이 토론의 멋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중에 그 의견의 근거와 성찰 정도와 공익성 등에 따라 존중의 무게는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다양한 생각은 물론 들어보아야 하지만, 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림 1> 학생 글: 디베이트 관련 영화감상문 쓰기

17) ‘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The Great Debaters)는 미국 덴젤 워싱턴 감독이 Wiley College의 토론 팀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007년에 제작한 영화이다.

<그림 1>과 같이 감상문을 쓰는 영화감상 활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디베이트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학생들이 전송한 감상문을 분석해보면 영화를 진지하게 감상하고 디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글들이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

2.1.1.2. 디베이트 주제 관련한 자료 조사

논쟁과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양하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은 학문적 탐구나 직무를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치밀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논쟁에 적합한 CEDA 토론 방식을 채택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¹⁸⁾ 논증 행위를 사회적 갈등으로 보는 것은 논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읽기가 수행하는 한 가지 기능을 암시하며, 하나의 논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사가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한 가지 기능은 매우 단순하게 논쟁할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으로 다른 형태의 인생, 일련의 경험들, 기본적인 신념들로부터 생겨나는 목소리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배경 지식 이상의 독서나 조사를 의미한다.¹⁹⁾

디베이트 팀원들은 주제 관련 도서를 읽고 디베이트 준비를 한다. 대결조의 조원들은 디베이트 주제를 뒷받침할 전략을 짜고, 디베이트 실시 전까지 관련 도서의 내용과 스스로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디베이트 실전 준비를 한다. 디베이트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시의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다. 제시된 도서 읽기는 디베이트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 학생들이 디베이트 주제 탐구와 디베이트 실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경지식을 축적하고 논리를 구축하게 한다.

독서디베이트는 비판적 읽기가 기본이며, 반드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논제를 찾아야 한다. 이는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논리 게임

18) 박재현,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토론 유형 선택의 변수」, 『화법 연구』 19, 한국 화법학회, 2011, 65면.

19) James Crosswhite, 앞의 책, 159면.

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한층 깊이 있게 다루는 논쟁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독서디베이트는 책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말할 수 있게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과 철학적 사고력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도 책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 훈련이 가장 큰 교육 효과이다.²⁰⁾

2.1.2. 디베이트 주제와 내용 구성

2.1.2.1. 디베이트 주제 기본 도서 요약, 서평 쓰기

<표 1> 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 및 디베이트 주제

도서명	저자	디베이트 주제
텅빈 요람	필립 롱맨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기본 소득제도가 필요하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세계는 곡물투기를 금지해야 한다.

<표 1>은 수업에서 실시하는 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와 디베이트 주제이다. 각 조원들은 위의 표에 제시된 도서를 읽고 디베이트에 필요한 기본 작업으로 ‘관련 도서 요약 쓰기, 서평 쓰기, 입장에 대한 입론, 교차질의, 반론 쓰기, 예상 반론과 반론 쓰기’를 실행하는 일련의 글쓰기를 통해 논증력 구성을 준비한다. 조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글쓰기 유형을 나누어서 디베이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각 조는 디베이트 주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한다. 자료 조사는 각종 서적과 매체의 기사,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다. 디베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디베이트 사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디베이트에 참고할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다. 디베이트 참고자료는 디베이트 후에 쓰는 논증글쓰

20) 최은희·유담, 『독서디베이트』, 글누림, 2014, 58-59면.

기의 기본 자료가 된다. 디베이트 참고자료를 조사한 학생들은 자료를 재구성해서 LMS에 탑재하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디베이트 준비를 한다.

논점을 만들어 논리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근거 자료로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책 읽기뿐만 아니라 연계도서와 사회적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논제에 관련된 지식이 극대화되게 한다.²¹⁾ 디베이트 준비 과정에서 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탐구는 곧 심도 있는 디베이트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많은 연구에서 읽기가 읽고 쓰는 능력인 리터러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결론이 도출된다. 읽기는 좋은 독자, 훌륭한 문장력, 풍부한 어휘력, 고급 문법 능력, 철자를 정확하게 쓰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²²⁾ 이 수업 모형에서 디베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디베이트 주제를 도출한 관련 도서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서평을 쓰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원끼리 협의해서 요약, 서평 쓰기를 나누어서 한다. 다음 <그림 2>는 학생이 관련 도서를 요약한 예시이다.

『팅빈 요람』의 요약
책의 저자인 필립 롬먼은 미국의 저명한 인구 문제 전문가이면서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다. 책은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청장년층이 부담해야 할 노년층 부양비용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미 청장년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노년층 부양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는 청장년층에게 2세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인 투자를 줄이게 만들며 역설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임을 예측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저출산이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지적한다.(후략)

<그림 2> 학생 글: 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 요약 쓰기

<그림 2>와 같이 먼저 학생들은 주제 관련 도서를 읽고 요약하기를 한

21) 위의 책, 56면.

22) Stephen D. Krashen, 조경숙 역, 『크라센의 읽기 혁명』, 도서출판 르네상스, 2013, 59면.

다. 도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은 자료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나아가 디베이트 실전 시에 상대팀의 의견을 파악하는 훈련이 된다. 각 조별로 주제 관련 도서 요약과 서평을 쓰는 활동을 맡아하는 학생들은 책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준비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기 초에 강의 진행 과정을 구축할 때 독서에 필요한 시간을 가늠해서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디베이트 실시 일을 정해야 한다. 요약한 글을 LMS에 올리면 수강생들이 관련 도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관련 도서에 대한 서평을 쓰는 작업은 학생들에게 디베이트 주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서평 쓰기는 제시된 도서에서 추출한 디베이트 주제를 탐색하는 시도이며 도서의 평을 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학 신입생들은 '서평'이라는 유형의 글에 관한 이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서평에 대해 인식하게 한 후 각 조에서 서평 쓰기를 맡은 학생이 제시된 도서를 읽고 서평을 쓰게 한다. 다음 <그림 3>은 학생의 서평 예시이다.

『텅빈 요람』의 서평
<p>‘텅 빈 요람.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접해보았을 거다.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 책은 저출산으로 인해 비어버린 요람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저출산이 불러온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이라는 부제를 살펴보자.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고령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출산율은 이미 기존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의, 전 세계의 고령화를 야기했다. 노령인구 약 148%로 고령사회까지 접어든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책이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저출산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탐구해보려 한다.(후략)</p>

<그림 3> 학생 글: 디베이트 주제 관련 도서 서평 쓰기

<그림 3> 예시의 서평과 같이, 학생들은 제시된 관련 도서를 읽고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디베이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심화하는 과정을 갖는다. 학생들이 쓴 서평은 LMS에 탑재해서 다른 학생들도 수시로 읽

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들이 서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게시된 서평 조회 수에 드러난다. 디베이트 주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서평에 주목하게 된다. 서평 작성은 디베이트 준비 과정에서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구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1.2.2. 디베이트 주제의 입론, 교차질의, 반론, 예상반론과 반론 쓰기

논증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주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어야 하며, 이 주장을 하는 이유,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어떤 이유의 형식으로 이 도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주장은 하나의 논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사 많은 청중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명백한 주장과 도전, 주장을 하는 명백한 이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논증으로서 받아들이는 한 논증으로서 작용한다.²³⁾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은 사고와 논증과 연구로서의 글쓰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일련의 의견은 타당하다. 글쓰기 훈련은 주어진 사고를 잘 표현하는 테크닉 훈련이기도 하지만 사고 훈련이기 때문이다.²⁴⁾ 디베이트는 논리 게임을 통해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한다. 디베이트의 특성이 논증글쓰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말로 했던 내용을 글로 표현하면 논증글이 작성된다.

논증글의 기반이 되는 디베이트 실전을 위해 각 조는 주제에 대한 입론, 교차질의, 반론, 예상 반론과 반론을 작성한다. 디베이트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써보는 것은 디베이트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며, 디베이트 실전에서 논증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다. 다음 <그림 4>는 학생이 입론, 교차질의, 반론을 작성한 예시이다.

23) James Crosswhite, 앞의 책, 149-150면.

24) 최규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는 것, 그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정체성 찾기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36, 이화어문학회, 2015, 40면.

주제: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입론
<p>‘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에 반대한다. 우선 책임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4조에 나와 있듯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수행하므로 그 책임을 국가가 일정 부분 수반한다. 국가가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주장에 대한 근거의 큰 틀로 ‘국민연금’을 제시한다.</p>
교차질의
<p>Q : 국민연금 계도를 통해 받는 금액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p> <p>A : 입론의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국가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다.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의 노후를 통째로 보장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책으로 나온 것이다.</p> <p>Q : ‘지속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유지되어야 할 텐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p> <p>A : 저출산 문제로 공적연금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듯이 만일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지켜질 것이다.</p>
반론
<p>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주제에 국민연금을 큰 틀로 안정성, 효율성, 지속성을 근거로 반대한다.</p> <p>국가는 그 자체로 망할 위험성이 낮으며, 의무적으로라도 개인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주고, 인구 회전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이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국민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는 존속이 가능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있어야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복지를 국가는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논제에 반대한다.</p>

<그림 4> 학생 글: 디베이트 준비 과정의 ‘입론, 교차질의, 반론’ 쓰기

<그림 4>에 예시된 논증의 요소는 디베이트 실전에서 학생들이 유연한 디베이트를 진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디베이트 실전에서는 이와 같이 정연하게 발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기 때문에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순발력에 의해 흥미로운 상황과 역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논증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디베이트 사전 준비로 반론을 작성하지만 메타적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론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디베이트가 실전에서는 예상반론에 대한 반론 작성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된다. 다음 <그림 5>는 학생이 예상 반론과 반론을 쓴 예시이다.

디베이트 주제: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예상 반론	반론
노후생활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면 이를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	지금 이 토론의 명제는 '노후생활은 개인의 책임인가?'이지 '노후생활의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다. 처음부터 정책논제가 아닌 가치명제이다.
연금 등을 통한 사회책임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개인 스스로의 준비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존재한다.	과거의 복지는 절대적 빈곤을 우려해서 연금 등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던 형태의 복지였다. 이러한 복지의 형태는 삶의 질 향상을 증시하는 다각적 복지로 전환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책임을 지우지는 못한다. 분야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미 노후 생활이 가능한 고소득 노인들에게도 국가가 도움을 주면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	책임의 유무와 실제 지원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국가는 다 책임을 진다. 다만 금전적 부분에 한정되지 않거나와 금전적 부분은 형평을 위해 조절할 수 있다.
오히려 경제활동가능인구에게 부양의 부담을 씌워 사회적 비용이 무지하게 지불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이익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노인인구에 대한 자본의 흐름이 늘어난다. 또한 다각적 복지는 상당부분 기존의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한 복지와 겹치고 이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림 5> 학생 글: 디베이트 준비 과정의 예상 반론과 반론 쓰기

<그림 5>와 같이 예상반론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는 활동은 디베이트 실전을 예측해보는 것으로 실전에서 보다 순발력 있게 논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예상 반론을 작성하고 그 예상 반론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는 추론의 사고 확장은 디베이트 실전에서 여유와 자신감으로 드러난다.

2.2. 디베이트 실전 수업 사례

디베이트 실시는 학기 초 강의 진행 과정을 구축할 때 계획한 수업일에 실시한다. 디베이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디베이트 참여자, 배심원, 청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 주도적으로 디베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분반 정원의 반절의 학생들이지만 나머지 청중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수자는 수강생들에게 디베이트 규칙을 설명하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중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 또한 디베이트 과정을 경청하도록 이끈다. 교수자는 디베이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절하며 진행한다. 디베이트에서 학생은 주체, 교수자는 주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의 시간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재고 알림 기능을 작동해주는 역할은 청중 역할을 하는 학생 중에서 지원자로 정한다.

디베이트를 하면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향상 된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발언하게 되고, 상대방 말의 논리 허점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게 된다. 디베이트 활동은 말하기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몸짓, 눈맞춤 등으로 표출되는 비언어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글쓰기 수업의 분반 당 디베이트에 참여하는 여러 역할에 대한 적정 학생 수 설정은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조와 대결 팀의 수와 각각의 인원 구성이 적합한 상황이 조성될 때 수업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2.2.1. 디베이트 규칙과 실전

디베이트 발언자는 상대방 말의 핵심을 파악하여 정해진 시간에 맞춰 논

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디베이트는 주제를 놓고 청중과 배심원 앞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개진하는 규칙이 분명한 토론 방식이다. 정책 토론의 경우는 다른 토론 방식에 비해 논제와 관련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⁵⁾ CEDA 토론에서는 사회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데 필요한 철저한 자료 조사와 증거가 필요하다. 토론 명칭이 가리키듯 교차질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⁶⁾

입론은 주어진 주제에 관한 자기 팀의 입장을 제시하는 말하기다.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역사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례 등을 들어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장하는 논점은 침례하게 대립할 사항이므로 압축해서 제시해야 한다.

교차질의는 본격적으로 대립적인 의견을 논하는 디베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팀의 주장과 논거의 오류와 부족한 점을 밝혀야 하고 자기 팀의 주장에 대한 상대팀의 지적을 감안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서로의 한계점을 수용하고 더 나은 대안을 추구하는 상호 협력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반론에서는 입론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상대를 공략할 뿐만 아니라 자기팀의 주장을 타당하게 입증해야 한다. 반론은 자기 팀의 주장을 명확하게 각인시킬 논점을 정리하고, 상대팀이 내세우는 반박의 핵심에 대해 정리하는 발언이다. 반론 발언에서는 배심원에게 논리의 타당성을 감성 언어를 사용해서 설득할 수 있다.

디베이트 규칙에 따라 준비해온 조사 자료를 참고해서 각 팀의 대결 조는 미리 제시된 규칙에 준거해서 디베이트를 실시한다. 디베이트 과정은 ‘①입론→②교차질의→③입론→④교차질의→⑤입론→⑥교차질의→⑦입론→⑧교차질의→⑨반론→⑩반론→⑪반론→⑫반론’의 순차로 진행한다.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5) 박재현, 앞의 글, 66-67면.

26) 위의 글, 56면.

<표 2> CEDA 방식 디베이트 진행 과정²⁷⁾

긍정 측		부정 측	
디베이터 1	디베이터 2	디베이터 1	디베이터 2
①입론(3분)			②교차질의(2분)
④교차질의(2분)		③입론(3분)	
	⑤입론(3분)	⑥교차질의(2분)	
	⑧교차질의(2분)		⑦입론(3분)
⑩반론(3분)		⑨반론(3분)	
	⑫반론(3분)		⑪반론(3분)

<표 2>에서 제시된 디베이트 진행 시간은 입론 3분, 교차질문 2분, 반론 3분으로 설정되고 한 팀의 디베이트 실시 시간은 32분이 소요된다. 실제 진행시에 발언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을 준수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3팀의 디베이트가 완료된다. 팀 교체 시간과 그 외의 소요되는 시간을 합해도 수업 시간 안에 마무리 된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디베이트는 한 분반에 세 팀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2시간 연강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2.2. 디베이트 채점과 판결

청중은 논증을 평가하는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논증에서든 매순간과 국면에서 역할을 한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청중이 없다면, 주장과 논증 행위는 없을 것이다.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주장은 대상이 되는 청중에게는 주장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²⁸⁾

디베이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에게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경기로, 배심원에게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²⁹⁾ 이처럼 디베이트는 발언자의 의견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 게임이다.

27) 디베이트 각 과정에 소요되는 세부 시간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시간과 대결 팀의 수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28) James Crosswhite, 앞의 책, 169면.

29) 박한진, 『디베이트와 논리적 사고』, 성숙한 삶, 2013, 10면.

다음 <그림 6>은 배심원 학생이 작성한 채점지 예시이다.

디베이트 채점표			
승리 조 _____ 1 _____ (조)		패배 조: _____ 2 _____ (조)	
디베이트 대결 조: _____ 1 _____ (조)		판결 조: _____ 3 _____ (조)	
1 (조)/긍정(찬성)측	2 (조)/부정(반대)측		
태도 _____ 5 _____	태도 _____ 4 _____		
팀워크 _____ 4 _____	팀워크 _____ 4 _____		
형식 _____ 4 _____	형식 _____ 5 _____		
전략 _____ 4 _____	전략 _____ 4 _____		
스피치 _____ 5 _____	스피치 _____ 4 _____		
(항목 배정: 5점-아주 뛰어남, 4점-뛰어남, 3점-보통 2점-보통 이하, 1점-부족)	(항목 배정: 5점-아주 뛰어남, 4점-뛰어남, 3점-보통, 2점-보통 이하, 1점-부족)		
조 점수 합계 _____ 22 _____	조 점수 합계 _____ 21 _____		
찬성 측 1조에 대한 전체 의견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조리 있게 발표한 것 같다.			
참가 학생 1에 대한 의견			
반대 측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 잘 답해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준비성이 보인다. 또한 일반 직장인과 개인 사업장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반대 측에 관철 시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반론한 내용을 이용해 자신의 반론에 이용하는 것도 보인 것 같다.			
참가 학생 2에 대한 의견			
정부 정책을 예시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해주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반대 측이 제시한 자료 중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달라는 질문이 날카로웠던 것 같다.			
반대 측 2조에 대한 전체 의견			
입론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게 제시되었지만, 찬성 측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참가 학생 1에 대한 의견			
찬성 측의 참가 학생 1의 입론에 대한 교차질의를 타당하게 하였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빠르기로 논변을 했다.			
참가 학생 2에 대한 의견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입론에서 주장을 펼쳤고, 논변 할 때의 목소리가 적당했다. 하지만 찬성 측의 교차질의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림 6> 배심원 학생이 작성한 디베이트 채점표

<그림 6>과 같이 이 수업 모형에서는 각 조에서 청중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한 배심원이 자신의 조가 참여하지 않는 두 팀의 디베이트에 대해 채점을 한다. 모든 팀의 디베이트가 끝나면 교수자는 배심원들의 채점표를 취합해서 승리 조를 발표하고, 디베이터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읽어주고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³⁰⁾

2.3. 디베이트 주제 논증 작성

2.3.1. 디베이트 주제 논증글쓰기

디베이트 실시 후 다음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은 디베이트 주제로 논증글을 쓴다.³¹⁾ 디베이터 역할을 한 학생들은 자기 팀의 입장을 선택하게 하고, 배심원과 청중 역할을 한 학생들은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논증글을 쓴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논증글쓰기 유의사항을 제시한다.³²⁾

첫째, 디베이트 실전에서 사용하는 구어적인 문투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어체로 써야한다는 점을 유의하게 한다. 논증글은 주제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한다.

둘째, 디베이트 실전에서 있을 수 있었던 감정적인 대립이 논증글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절제되고 차분한 태도와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써야한다는 점을 유의하게 한다.

30)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경우나 비대면 수업 시에는 배심원 채점 발표와 교수자 피드백을 다음 수업 시간에 실시한다.

31) 비대면 수업 시는 디베이트 실시 후 1주일 기한을 정해주고 학생들이 작성한 논증글을 LMS에 제출하게 한다.

32) 디베이트 후 수강생들에게 원고지 600자 논증글을 쓰게 한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규격에 맞는 원고지를 제공한다. 비대면 수업 시는 타이핑이 가능한 원고지 양식 파일을 LMS에 제시하고, 원고지를 출력해서 손 글씨로 작성해 스캔하거나 원고지 파일에 타이핑해서 제출하게 한다.

2.3.2. 디베이트 논증글 단계적 첨삭

<표 3>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³³⁾

구분	연계·단계적 활동 내용		세부 내용	평가	시기	
디베이트 활동 및 논증 글쓰기	준비	영화감상	디베이트 관련 영화감상 쓰기	영화감상문 제출	개인 과제	5주
		자료조사 관련도서	참고 자료 정리 관련 도서 요약, 서평 쓰기	각 조원들이 항목 나누어 정리 후 제출	조별 과제	6~8주
		내용 구성	입론, 교차질의, 반론, 예상 반론과 반론 작성			
	실전	디베이트	①입론→②교차질의→③입론 →④교차질의→⑤입론→⑥교 차질의→⑦입론→⑧교차질의 →⑨반론→⑩반론→⑪반론→ ⑫반론	입론 3분, 교차질의 2분, 반론 3분	조별 활동	9주
논증 글쓰기	디베이트 주제 글쓰기	논증글 주제 자유 선택	원고지 600자	개인 과제	10주	
논증글 첨삭 및 수정	첫 번째 첨삭	3차 첨삭	1차: 자기 첨삭 2차: 동료 첨삭 3차: 교수자 첨삭	1~3차 첨삭 수정 첫 번째 과제 제출	개인 과제	11주
	두 번째 첨삭	3차 첨삭	1차: 자기 첨삭 2차: 동료 첨삭 3차: 교수자 첨삭	1~3차 첨삭 수정 두 번째 과제 제출	개인 과제	12주
	심화 첨삭	2차 첨삭	1차: 자기 첨삭 2차: 교수자 첨삭	1~2차 첨삭 수정 제출	개인 과제	13~14주
	최종 수정	과제 평가	첫 번째, 두 번째, 최종 글 제출	과정, 완성도 평가	개인 과제	15주

33) 이 수업 모형은 대면·비대면 수업에서 모두 가능하다. 대면 수업은 강의실 수
업과 LMS를 활용하고,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화상 수업과 LMS를 활용한다.

<표 3>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한 연계적이고 단계적인 글 쓰기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은 최종 논증글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의 연계적이고 단계적인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논증글을 몇 차에 걸쳐 쓰는 과정에서 첨삭이 이루어진다. 첨삭은 모두 3차에 걸쳐 ‘자기 첨삭 → 동료 첨삭 → 교수자 첨삭’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기 첨삭’과 ‘동료 첨삭’은 수업 시간에 하고, 교수자는 첨삭된 학생들의 글을 제출하게 해서 ‘교수자 첨삭’을 한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한다. 이처럼 진행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첫째,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자기 첨삭을 하게 한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수정할 부분을 중심으로 첨삭하게 한다. 첨삭할 요소는 교수자가 기본 사항을 제시하고, 그 외의 첨삭 요소를 자유롭게 첨가할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 글에 대해 자신이 첨삭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첨삭할 때는 한결 적극적으로 한다.

둘째, 자기 첨삭한 글은 동료들과 서로 교환해서 동료 첨삭을 하게 한다. 디베이트에 참석했던 분반 정원 반절 정도의 학생들은 디베이트 실전 주제로 논증글을 썼기 때문에 첨삭도 역시 디베이트 실전에서의 상대팀과 바뀌어 하도록 한다. 그 외의 배심원이나 청중 역할을 한 학생들은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동료 첨삭도 역시 동료들과 글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한 방향으로 전달해서 첨삭하게 한다. 동료 첨삭의 경우는 첨삭자를 밝혀서 첨삭의 객관성과 예의를 지키고 글쓴이와 첨삭자가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두 사람 이상의 동료 첨삭을 받게 하고 두 첨삭 내용을 비교 분석하게 한다.

디베이트를 한 후 논증글쓰기 과정을 실시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베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논증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지식

34) 비대면 수업에서는 모든 첨삭 과정이 LMS에서 실행된다.

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가 정연한 글을 쓸 수 있으며, 첨삭도 역시 내용면에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이루어진다. 동료 첨삭 시에 디베이트 상대팀 동료와 교환해서 첨삭하게 될 경우의 첨삭 글은 또 한 번의 디베이트장이 되기도 한다. 논증의 주제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견고하게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첨삭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다.

둘째, 교수자는 논증글을 쓴 학생과 첨삭을 한 학생의 첨삭 내용을 보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첨삭하게 된다. 동료 첨삭에 대한 교수자의 메타 첨삭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디베이트 실전을 선행했기 때문에 학생들 글의 수준이 높고, 첨삭 또한 디베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예리하다. 한 편의 글에 대해 동료 첨삭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교수자 첨삭은 심화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논증글의 첨삭 3차시는 ‘자기 첨삭(1차) → 동료 첨삭(2차) → 교수자 첨삭(3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첫 번째 첨삭 3차가 마무리 되면 첨삭 받은 논증글을 새로운 원고지에 수정해서 1차 논증글 과제물로 제출하게 하고, 교수자 첨삭을 해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준다. 첫 번째 첨삭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글로 두 번째 첨삭의 3차 첨삭을 반복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정 기간의 간격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내용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주일로 정한다. 두 번째 첨삭 시는 첫 번째 첨삭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첨삭해야 할 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글의 내용과 형식에서 완성도가 높아진다.

위의 두 번에 걸친 첨삭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다. 두 번째 첨삭 후 교수자는 첨삭을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수정한 글을 제출할 때마다 교수자의 심화 첨삭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일정 기간 후에 수정을 거듭해서 정리한 최종 글은 세 번째 논증글 과제물로 제출하게 한다.

요즘은 원고지에 글을 쓰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들이 원고지에 처음 글을 쓸 때는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고 사용법을 어렵게 여기지만, 원고지에 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완전하게 익히게 된다. 학생들은 원고지쓰기를 통해 띄어쓰기, 단락 구성, 분량 조절 등을 효율적으로 익히게 된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원고지를 사용해서 글을 쓰게 한다. 다음 <그림

7>은 수강생이 디베이트 주제로 쓴 논증글 예시이다.

노후, 국가의 의무																			
헌법 제 2조 조어 나라 앞 다투어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다면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국가적 도훈의 한 예로 국민연금을 살펴보																			
자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납입액																			
을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본인																			
이나 유족에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금 제도는 안정성과 지속성의 특징을																			
가진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국가차원에서 관																			
리한다. 그래서 각종 사보험보다 안정성을 갖는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되어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렇게 모아진 보험료를 노인인구의 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노후																			
를 보장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수록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개인																			
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 가능하다면 국가의																			
존재는 의미 없을 것이다.																			

제목 : 노후, 국가의 의무
 주제 :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서론 : 국가의 의무
 · 헌법 제 2조
 · 국가적 도훈의
 한에 국민연금
 본문 : 국민연금의 중요
 · 국민연금의 특징
 1) 안정성
 2)료율성
 결론 : 저출산 문제로
 인한 국민연금에 위기
 ·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림 7> 학생의 디베이트 주제 논증글

3.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 효과

본고에서는 디베이트 과정에서 실행한 핵심적인 방법들을 실제 글쓰기에 적용하여 논증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본 수업 모형을 적

용한 글쓰기 수업에서는 다양한 요소와 종류의 쓰기에서 시작하여 논증글쓰기로 나아가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 모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이 글쓰기 수업 사례를 분석해서 일반화된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 사례가 다른 교수자의 수업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교수자의 수업에서도 활용되는 수업 모형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수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즉 디베이트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항목의 효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바탕으로 하는 디베이트 준비는 다양한 글을 쓰는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한다. 특히 디베이트의 핵심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게임식 유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디베이트의 완성도와 나아가 글쓰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CEDA 토론 방식에서는 무엇보다 정교한 논증이 중요하다.³⁵⁾ 디베이트가 수강생들의 논증글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논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다음의 설문과 분석으로 살필 수 있다. 본고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검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디베이트 적용의 글쓰기 효과 검증 분석

3.1.1. 연구 가설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35) S. Jensen, Apples and Oranges, A Comparative Analysis of Adjudication in Parliamentary and CEDA/NDT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84, 1998.

- 연구가설 1: 입론의 효능은 디베이트 전에 비해 후에 증가할 것이다.
- 연구가설 2: 반론의 효능은 디베이트 전에 비해 후에 증가할 것이다.
- 연구가설 3: 반론에 대한 반론의 효능은 디베이트 전에 비해 후에 증가할 것이다.
- 연구가설 4: 논증력의 효능은 디베이트 전에 비해 후에 증가할 것이다.
- 연구가설 5: 디베이트 자료 조사의 효능은 척도 평균 3점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6: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은 척도 평균 3점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7: 디베이트 판정을 통한 효능은 척도 평균 3점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8: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은 척도 평균 3점보다 높을 것이다.

3.1.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J대학교 신입생 기초 교양 글쓰기 3개 분반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일주일 동안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7부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3.1.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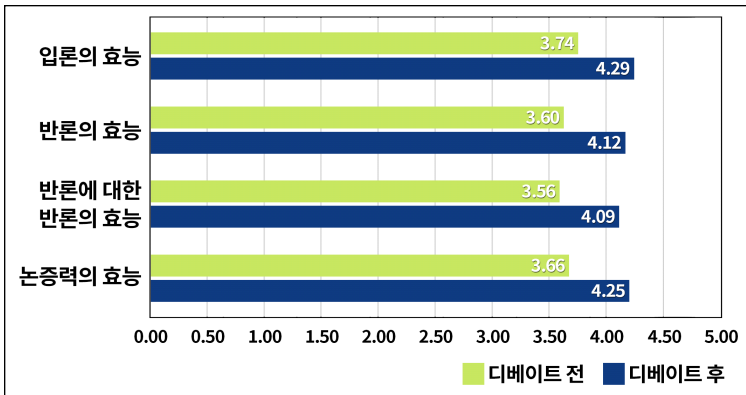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고찰한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였다.

- 첫 번째,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 두 번째,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일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3.1.4. 분석 결과

3.1.4.1.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 차이 분석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은 다음 <그림 8>과 같다. 입론의 효능은 사전 3.74점(SD=.91), 사후 4.29점(SD=.74)으로 나타났으며, 반론의 효능은 사전 3.60점(SD=.92), 사후 4.12점(SD=.76)이었다. 또한 반론에 대한 반론의 효능은 사전 3.56점(SD=.92), 사후 4.09점(SD=.80)이었으며, 논증력의 효능은 사전 3.66점(SD=.80), 사후 4.25점(SD=.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디베이트 전에 비해 후에 평균 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논증력의 효능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입론의 효능, 반론에 대한 반론의 효능, 반론의 효능 순이었다.



<그림 8>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 차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유의수준 5%에서 입론의 효능($t=-5.428, p<.001$), 반론의 효능($t=-4.998, p<.001$), 반론에 대한 반론의 효능($t=-4.898, p<.001$), 논증력의 효능($t=-6.542,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베이트 후에 학생들의 논증글쓰기에 효능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디베이트 전 후의 효능의 변화는 입론과 반론의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논능력의 향상을 말해주고 있다. 디베이트의 말하기를 글로 표현해서 말하듯이 글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경험을 한 수강생들의 디베이트 후의 효능이 전 항목에서 고르게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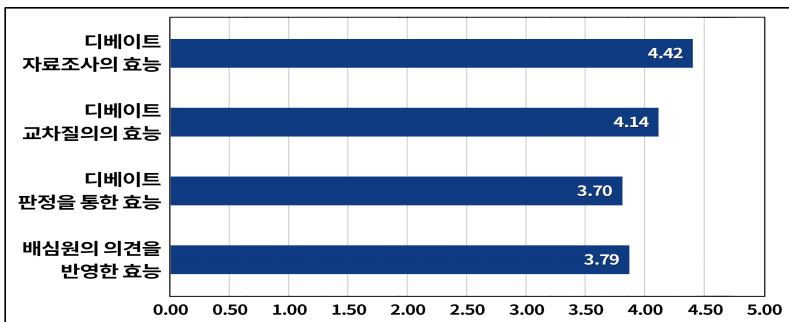
<표 5> 논증글쓰기의 디베이트 전 후 효능 차이

구분	시점	N	평균	표준편차	t
입론의 효능	사전	77	3.74	.91	-5.428***
	사후	77	4.29	.74	
반론의 효능	사전	77	3.60	.92	-4.998***
	사후	77	4.12	.76	
반론에 대한 반론의 효능	사전	77	3.56	.92	-4.898***
	사후	77	4.09	.80	
논증력의 효능	사전	77	3.66	.80	-6.542***
	사후	77	4.25	.75	

*** $p < .001$

3.1.4.2.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 분석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디베이트 자료조사의 효능은 4.42점(SD=.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 4.14점(SD=.94),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 3.79점(SD=.96), 디베이트 판정을 통한 효능 3.70점(SD=1.04) 순이었다.



<그림 9>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 분석은 다음 <표 6>과 같다. 유의수준 5%에서 디베이트 자료 조사의 효능($t=17.407, p<.001$),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t=10.647, p<.001$), 디베이트 판정을 통한 효능($t=5.920, p<.001$),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t=7.209,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은 척도 평균 3점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디베이트 자료조사의 효능,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디베이트 준비 및 실시 경험이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 자료조사에 의한 효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 효과의 극대화를 말해준다. 이는 디베이트 준비 과정과 실전을 거쳐 글쓰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모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6> 디베이트 준비, 실시, 판정, 의견의 효능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디베이트 자료조사의 효능	77	4.42	.71	17.407***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	77	4.14	.94	10.647***
디베이트 판정을 통한 효능	77	3.70	1.04	5.920***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	77	3.79	.96	7.209***

*** $p<.001$

이 연구의 주된 논의 대상은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은 제시한 디베이트 규칙에 따라 여러 활동을 매우 능동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쓰기 교육 현장에서 디베이트를 적용해서 글쓰기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디베이트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의 효과

3.2.1. 디베이트 자료조사의 효능

CEDA 토론 방식은 증거 의존적인 전략으로 증거의 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³⁶⁾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디베이트 실시 전에 수행하는 자료조사 내용을 일정한 항목을 제시해서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LMS에 제출하게 한다. 여기에서 디베이트 준비 단계로 인식하고 대결조의 조사자료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조원들의 협력 극대화를 유도한다. 즉 자료조사가 디베이트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게 해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디베이트를 실시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촉발제가 된다. 또한 LMS에 제출하는 자료는 구성원 누구나 볼 수 있는 해당 게시판에 탑재하게 되니 온라인상에서의 자료를 통한 게임식 자료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대팀이 올리는 자료를 주시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이 되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올리는 일련의 과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조사한 자료는 제출 기한 안에 얼마든지 수정해서 올릴 수 있으니 상대팀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이른바 게임식의 자료조사가 계속된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자료 제출 기한을 1차, 2차로 정해주며, 각 제출일 사이의 기간은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해준다. 업로드 된 1차 자료로 시작해서 2차 최종 자료 업로드까지 학생들은 상대팀의 자료를 조회하고 견지하며 수정과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상의 디베이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디베이트를 담당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중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 배심원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까지도 온라인상에 실시

36) H. L. Lawson & E. C. Skaggs,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cative Behavior in CEDA Lincoln-Douglas Debate and CEDA Team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4.

간으로 업로드 되는 디베이트 자료를 검색하게 되어 배경 지식 습득과 그 이상의 논증력 확장으로 나아가 결국 글쓰기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3.2.2. 디베이트 교차질의 효능

디베이트는 입론, 교차질의, 반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연 교차질의 과정이다. 디베이트에 참여하는 디베이터 수강생들은 사전에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욱 패기 있게 교차질의에 열정을 쏟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디베이트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질의는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받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학생들의 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디베이트 과정에서 치열했던 교차질의의 내용은 디베이트 후 수강생들의 글에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난다.

교차질의에 주목하는 양상은 디베이터인 수강생을 비롯해서 배심원이나 청중의 역할을 하는 수강생들 모두에게 나타난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는 높은 효능을 보여준다. 수강생들은 디베이트에서 교차질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글을 수정한다. 교차질의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논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교차질의의 쟁점 사항은 수강생들의 글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디베이트 교차질의의 내용을 논증글쓰기에 많이 적용하는 현상은 디베이트의 전형적인 특성인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승부욕에서 비롯된 능동적 자세를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질의가 논증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은 질의응답의 효능을 극대화해서 쟁점을 펼치는 논증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3. 디베이트 판정과 배심원 의견에서의 효과

3.3.1. 디베이트 판정을 통한 효능

학생들의 디베이트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고 배심원들의 평가로 승

패가 난다. 승패는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에 디베이트를 관람했던 청중들도 예측하게 된다. 모든 수강생들은 배심원들의 판결에 의한 개연성 있고 객관적인 승패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후에 이어지는 논증글쓰기에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교수자는 수강생들에게 디베이트를 3가지의 주제 중에서 자유 선택해서 논증글을 쓰라고 지시한다. 청중 역할을 했던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서 대체적으로 승리한 편의 의견에 관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디베이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디베이트 실전에서 맡았던 의견을 선택해 글을 쓰지만, 일부 학생들은 입장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소신이 반영된 진솔한 글쓰기로 이어지는데, 논리 구성이 양쪽 입장의 이해가 바탕이 된 돋보이는 논증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디베이트 실전에서 이긴 팀의 주제가 설득력이 강한 주제로 부각되어 학습자들의 흥미가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논증글 결과물을 분석해보면 디베이트에서 이긴 팀의 주제에 대한 근거 제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처럼 디베이트 판결은 학습자들이 논증글 주제를 선택하게 하는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3.3.2.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

디베이트 주제로 작성한 수강생들의 논증글은 배심원이 채점한 채점표에 제시한 의견을 적용해서 글의 완성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진 경우가 많다. 일반 논쟁과 달리 배심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디베이트를 적용한 글쓰기 효과가 명료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논증글쓰기를 위한 디베이트 적용 수업 모형에서 배심원 의견이 가진 효과는 수강생들의 효능을 측정하는 설문에서 드러난다.

배심원들은 디베이트 채점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각 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디베이트에 대한 상세 의견을 채점지에 기록한다. 교수자는 배심원들의 채점표를 취합해서 대결 팀의 승패를 가르고, 배심원이 쓴 의견을 모든 학생들에게 읽어주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여기에서

교수자는 배심원들의 예리한 의견이 학생들의 논증글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모든 수강생들은 LMS에 업로드 된 모든 팀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채점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논증글 작성에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LMS에 탑재된 채점표 조회수는 배심원이 채점표에 서술한 디베이트 해결 팀과 디베이터들에 대한 배심원의 섬세하고 예리한 코멘트에 관심이 많다는 근거로 나타난다. 디베이트 자료를 올리는 게시판에 유독 채점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 디베이트를 직접 주도했던 학생들에게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예민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상은 디베이트를 주도했던 수강생들의 논증글 수정 후 완성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디베이트를 활용한 수업 모형에서 디베이트를 위한 준비 과정과 실천 후 논증글쓰기로 완성되는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디베이트 주제 자료조사, 입론, 교차질의, 반론 작성 과정에서 상대 팀과 대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구축하고 의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디베이트는 주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의견의 논거를 구성하는 과정은 사안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디베이트는 논리력을 향상하는 교육 방법이다. 의견을 찬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논점을 분명하게 논증하는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은 세상 이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디베이트를 활용하는 글쓰기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 현장을 비롯해 사회 현장에서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베이트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은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네 요소를 토대로 여러 측면에서 연계되어 작동하는 단계적인 학습이 된다. 교육현장에서 디베이트는 다양한 과목과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완성도 높은 논리적인 글쓰기는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과정이 종합된 디베이트를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교수자는 디베이트에서 학생의 주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학생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학생은 생각을 정리하고 발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하며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성 언어와 몸짓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디베이트 참가자는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말하기로 배심원에게 평가 받은 뒤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마무리 한다. 이처럼 찬반이 명확한 주제에 관한 논리를 비교해서 평가하며 의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디베이트는 논리적인 글쓰기 교육에 유용하다.

글쓰기에 필요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작동해서 실시하는 디베이트는 다양한 글을 쓰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데 효과적이다. 디베이트 준비 과정은 조사한 자료 분석, 관련 도서 읽기 활동을 통해 비판적 읽기를 심화 확장시키며, 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에 대한 근거를 찾고 논리를 재구성하게 한다. 디베이트에 관련된 자료 조사는 주제에 관련된 핵심 어휘 습득에 효과적이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말하기는 의견 발표에 자신감을 주며 쓰기 능력을 신장하게 한다.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은 논증글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논증글쓰기 능력은 대학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토대가 된다. 학습자들은 디베이트를 준비하고 실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체계와 논증력이 신장된다. 다양한 글을 써보는 활동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찬성과 반대 논리를 개진하는 과정은 논증글 구조의 구축과 같기 때문에 대학글쓰기에서

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의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디베이트를 적용한 학습의 효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디베이트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의 효과로 게임식 자료조사와 교차질의에 의해 글쓰기의 논증력 신장에 효능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디베이트 판결과 채점 결과에서의 효과는 판결 결과와 배심원의 의견에 의해 정교한 논증을 구축하는 글쓰기에 효능을 드러낸다.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 강좌는 학생들에게 구어적 의사소통 맥락의 확장을 통해 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최상의 논리를 이끌어내는 효능을 극대화한다. 이 연구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임식 디베이트를 활용한 글쓰기가 능동적인 논증력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69-100면.
- 강원화·장혜영, 「디베이트 소그룹 지도 사례 연구」, 『사고와표현』 10,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37-85면.
- 김일방, 「디베이트 수업이 학생들의 토론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21-2,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2019, 105-131면.
- 나은미, 「대학 토론 교육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 방안: 교양교육으로서 토론을 대상으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2011, 241-269면.
- 박재현,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토론 유형 선택의 변수」,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2011, 47-79면.
- 박한진, 『디베이트와 논리적 사고』, 성숙한 삶, 2013.
- 이두원, 「CEDA 찬, 반 논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효과적인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90-123면.
- , 「토론자의 디베이트 능력과 수행평가 모델 연구: 아카데미식 정책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83-103면.
- 이상원, 『서울대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2015.
- 이은주,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글쓰기 수업의 효과-덕성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2011, 501-516면.
- 정희모, 「대학 작문에서 인지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작문연구』 18, 한국작문학회, 2013, 9-33면.
- 최규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는 것, 그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정체성 찾기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36, 이화어문학회, 2015, 29-49면.
- , 『대학시절의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와 친해지기 편』, 명지대학교 출

- 판부, 2014.
- 최은희 · 유담, 『독서디베이트: 책 읽기의 혁명, 교육혁명』, 글누림, 2014.
- 케빈 리, 『디베이트』, 한겨레에듀, 2011.
- Bigg, John, 강현석 외 5인, 『대학교육의 서론은 도전: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 Crosswhite, James, 오형엽 역, 『이성의 수사학-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Krashen, Stephen D., 조경숙 역, 『크라센의 읽기 혁명』, 르네상스, 2013.
- Williams, Joseph M. & Colomb, Gregory G., 윤영삼 역, 『논증의 탄생-글쓰기의 새로운 전략』, 홍문관, 2009.
- Jesen, S., Apples and Oranges, A Comparative Analysis of Adjudication in Parliamentary and CEDA/NDT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84, 1998.
- Lawson, H. L. & Skaggs, E. C.,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cative Behavior in CEDA Lincoln-Douglas Debate and CEDA Team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4.

【Abstract】

Linkage·Stepwise Writing Class Model Using Debate -Focus on the Cases of Basic Liberal Writing Classes in University-

So, Pilgyun

Classes using debate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ability of argumentative writing. Ability to write arguments becomes the foundation of academic writing,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writing. System of logical thinking and ability to argue improv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executing the actual debate. The process of creating pros and cons of a debate topic is the same a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structure of arguments and becomes the basis of academic writing.

This study suggests a teaching method using debate that carries out all the basic cours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posed of ‘reading·listening·speaking·writing’ as a way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eaching writing. This teaching method is a class program that allows students to write arguments, which is the last step of debate class model, systematically and naturally because these four areas are linked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a class model that gets completed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pre-debate materials’→‘cases of actual debate classes’→‘argumentative writing of debate topic’ based on actual class experiences. This class model gets completed step by step in a systematic way through linked interaction and systematic methods in the process of using variou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debate and writing activities of various elements.

The effect of writing classes that applied debate can be summarized as the effect of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debate and the effect of

judgement and jury's opinion. Data investigation constructs the reason of opinion and background of argument, and cross inquiry is effective in strengthening argumentative power and the core of writing by focusing on the radical point. Decision and opinion of juries are specifically reflected in the topic selection and logical development of writing. It was identified that these effects of before and after the debate and efficacy of the process are all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verification based on the survey of learners.

Keyword: debate, research, argument, counterargument, cross inquiry,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argumentative writing, linkage, step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